



생각에 킁시다



▶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

“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다.”

-S. 필립스

친구의 생일 축하 카드에 적을 멋진 말을 찾다가 발견한 글입니다.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설날이면 떡국을 몇 그릇씩 먹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, 하루 하루가 어찌나 빨리 가는지 한 살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한 살을 먹습니다. 이제는 생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. 한 살 또 늙는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 서글프기까지 합니다.

하지만 늙어간다고 생각하던 관점을 돌려 익어간다고 생각하니, 내 자신이 한 살 더 멋있어 보입니다.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살 더 멋있어지겠지요. 더 성숙해지겠지요.

출처 : 좋은생각 / 작은 이야기, 정현숙

공단 임직원 경조사

● 결혼을 축하합니다.

- 안전기획팀 강길보 대리(2007. 10. 13)
- 부산지부 이 철 부장 차남(2007. 10. 27)
- 완도지부 임용길 부장 삼남(2007. 10. 27)

●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

- 태안지부 하영운 부장 병모 별세(2007. 10. 4)

알려드려요



알리는 말씀



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.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,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.

연락처 → TEL : 032-260-2226 / FAX : 032-260-2275 / E-mail : vicadpr@kst.or.kr